

우리 인생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는 짐이 아닙니다. 나 혼자 해결하려 할 때 짐이 됩니다.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짐 때문이 아니라 그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?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신자가 겪는 똑같은 문제와 역경들이 찾아옵니다.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맡길 곳이 있습니다(찬 337장).

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져야 할 짐과 맡겨야 할 짐을 구별하는 것입니다.

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시는 짐들이 있습니다. ‘다시 주님께 맡기는 훈련’을 하게 하려고 지우신 짐들입니다. 그런데 주님의 의도와 달리 우리는 그 짐을 ‘지려고’ 합니다.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신 각종 의무와 책임감에서 벗어나십시오.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.

‘불확실성’만큼 무거운 짐이 없습니다.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,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. 영적인 삶은 ‘불확실성’ 속에서도 ‘확신’을 누리는 것입니다.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, 불확실한 우리 인생과 무거운 짐을 주께 넘길 수 있습니다. “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”(마 11:28-30).

나는 주님께 짐을 맡기고
있습니까?

- ① 확실한 하나님께 불확실한 내 삶을 맡기고 있습니까?
- ② 주님께 여전히 맡기지 못한 짐은 무엇입니까?